

## GS칼텍스, 키스 프라임으로 고급화 선언

GS칼텍스는 4월6일부터 고급휘발유 브랜드인 키스프라임(Kixx Prime)을 본격 출시한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옥탄가 100.2 이상의 키스프라임은 엔진의 이상발화를 막고 가속성 향상제가 들어있어 엔진 출력을 높여주고, 소음과 차량 떨림을 줄여주며, 엔진세정제가 다량 함유돼 신차는 엔진 성능을 오래도록 유지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키스 프라임은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돼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한 고급 신차 출고시 전용 고급휘발유 브랜드로 속속 선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GS칼텍스는 고급 휘발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고급휘발유 취급 주유소를 4월 12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또 새로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6월말까지 고급휘발유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측물을 제공하고, 주유소에 고급휘발유 주유 전용구역인 오렌지 색상의 프라임 존을 설치해 고품격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GS칼텍스 손은경 마케팅개발실장은 “고급휘발유는 차종에 상관없이 엔진성능 개선과 연비가 향상되는 장점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로부터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06>